

자연과학자 박문호의 우주적 불교론

무화(無化)의 세계가 우리가 돌아갈 본연의 곳

불교를 통해 물리, 극미, 양자역학의 세계를 깊게 천착...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달음, 그 길은 자연과학에도 있는 것

사진 오상민 월간중앙 기자 (osang@joongang.co.kr)

지난 6년간 일요일 오전 대전에서 서울로 갔다.

봄날 차 뒷자리에서 아련한 옛 영화음악에 젖어 창 밖을 본다.

겨울나무들 끝가지에 연보라색 기운이 감돌고 파아란 하늘에

구름 몇 조각 사진처럼 떠있다.

몽롱한 봄기운이 스며들면 아찔하게 올라오는 생각이 하나 있다.

왜 이 모든 존재는 존재하는 걸까.

강과 산과 바람과 구름 그리고 나

존재는 왜 존재하게 된 걸까.

아무것도 없지 않고 가려움처럼, 기억처럼,

한 장의 우주가 존재하게 된 걸까.

아무것도 없는 우주는 논리적 모순인가.

존재의 심연이 이처럼 몽환적 봄기운을 타고

홀연히 나타났다가 곧 사라진다.

그리고 이미 존재하게 된 우주적 일상이 펼쳐져 있다.

- '박문호의 자연과학세상' 저 <유니버설 랭귀지> 서문 중에서

7년 전이었다. C화백으로부터 경주 삼능 집에 오라는 연락이 왔다. 대전에서 책 읽기 모임을 주도하는 전자통신연구원(ETRI)의 박사님이 와 있으니 만나보라고 했다. 나와는 전혀 다른 분야라 관심이 기울었다. 그날 삼능에서 만난 사람이 박문호 박사였다. 경주 태생에 친가가 삼능에 있어 가끔씩 경주에 내려오는 듯했다. 박사가 내 신라역사 에세이 '능으로 가는 길'을 잘 읽었다고 하여 이내 친근감을 가졌는데, 근래에 그가 다녀온 호주가 화제에 올랐다. 지구

공주 계룡산
갑사의 종각
앞에서 만추의
투명한 서정을
즐기는 박문호
박사. 우주의
일상이 화려하게
펼쳐진 공간에서의
명상이다.



사진 오상민

산소의 기원인 시아노박테리아가 자라고 있는 남호주 샤크베이의 '스트로마톨라이트(stromatolite)'라는 암석덩어리에 대하여. 35억 년 전 생명의 시원을 담은 살아있는 화석이 지금도 산소를 보글보글 내뿜으며 샤크베이 해멀린폴 바닷가에 펼쳐져 있다고 했다.

35억 년이라... 인류학과 진화생물학 책은 어느 정도 읽었지만 본격적인 우주서적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가 떠오를 뿐이다. <코스모스>는 과학에 무관심했던 젊은 날 예상외로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나지만 그마저도 세부적인 것은 잊어버렸다. 우주

의 나이는 나의 이해를 넘어설 만큼 초현실적이지만 그날 삼릉에서 들은 35억 년이란 산소의 역사는 나의 무지를 흔들었고 우주에 대한 경의심을 일깨우기에 충분했다. 스트로마톨라이트를 보러 꼭 호주에 가리라! 1년 뒤 박사는 호주 탐사 계획을 세웠고 나는 70명이나 되는 회원과 동행하여 지구 초기의 원형을 간직한 생명의 현장을 찾았다. 명석한 자연과 학자의 인식욕에 자극받아 지구의 반 바퀴를 돌았던 것이다.

어떤 만남으로 삶의 시야가 확장됐다면 행운일 것이다. 다른 회원처럼 나도 박사를 알게 되면서 과학



뇌를 공부하는 것은 사람 속에 내재한 물고기를 발견하기 위해서다. 5억 년 전 물고기가 인간까지 오는 과정을 추적하면 동물적 본능의 본질을 직시할 수 있다.

적 사고방식을 요구하는 독서로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의식의 기원> <마음의 역사> <신은 왜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가> 등의 책을 통해 인류의 뇌를 만들어온 신의 존재를 확연히 알게 됐다. 그가 불교방송에서 28회 강연했던 '뇌, 생각의 출현은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불교까지 더 잘 이해하도록 했다.

작년엔 '박자세'(사단법인 '박문호의 자연과학세상') 회원들과 실크로드를 11박 답사하며 불교사에서부터 대승기신론까지 버스 안에서 박사의 명강의를 들었다.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대전에서 전자통신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주 서울에서 '137억 년 우주의 역사'와 뇌과학에 관해 지속적인 강연을 진행하며 자연과학의 대중화운동을 한다. 다른 강연도 많거니와 1년에 두 번씩 '박자세' 회원들과 해외 자

대적전을 나와 바라본 가을 하늘이 유난히 청정하다. 홀연 조바심이 사라지고 막혔던 기운이 풀리는 느낌이다.

연탐사를 위해 호주나 몽골로 간다. 그 후 펴낸 <서호주>와 <몽골>은 한 회원의 표현대로 '지식과 통찰의 향연'이어서 감사의 마음으로 읽는 책이다. 불교공부는 또 언제 했길래 학승처럼 강의를 하는지 놀라울 뿐이다.

동해바다 보고 느낀 자연의 경외감

그는 경주에서 태어났지만 여섯 살 때 울진군 후포로 이사해 초등학교부터 고교 시절까지 성장기를 보냈다. 이사 갈 때 동해안 비포장도로를 달려 강구를 지나가다가 바다를 처음 보았다. 무한대의 바다는 아이를 놀라게 했고, 자연에 대한 그 경외감은 지금까지도 뇌리에 깔려 있다.

사람마다 다 변환기가 있지만 소년에게 공부에 대한 열망이 싹튼 것은 중학교 1, 2학년 때였다. 공부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는 하루에 몇 마디를 하는지 궁금해서 한 달간 세어본 적이 있었다. 긴 호흡의 사고작용인지 모른다. 초등학교 때는 동네에 TV가 단 한 대뿐이어서 친구 집에서 <주말의 평화>를 보았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본 필벽의 <대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러닝타임 3시간짜

사진: 중앙포토



리 영화에 아이는 꿈쩍도 않고 몰입했다. 그 후로도 소년은 긴 호흡의 대서사시를 좋아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자유교양도서 읽기 대회'를 매년 했다. 그는 중1 때 올진군의 책 읽기 대회에서 1등을 했다. 생물시간에 배운 중북수정은 무척 흥미로웠다. 그것이 지금의 '우주 137억 년' 강의를 하게 된 먼 배경이 된 것 같다. 분자식을 배우는 물상 과목도 재미있었다. 중3 때는 어른이 보는 <중앙일보>를 1년간 보면서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웠다.

후포고교에선 1년에 한 명 경북대학교에 보내는 것이 목표였다. 그는 물리학을 하고 싶었지만 전자과에 들어갔다. 생각과 달리 실용적인 학문이라 재미가 없었다. 다행히 사대 물리학과 고재길 교수 강의를 통해 기초물리학을 배울 수 있었다.

서클활동으로 '대구 구도회'에 들어갔다. 이기영·정병조 교수가 주축이 된 '한국불교연구원의 산하단체였다. 리더였던 김현준 씨는 중3 때 벌써 성철 스님을 추천하고 3천 배를 한 열성 불자였다. 박종린 선배의 대단한 수행의지도 대학시절 그의 본보기였다. 지도법사였던 우룡 큰스님은 지금도 설날이면 찾아가는 은사 같은 강백(講伯: 경론을 강의하는 승려)이다. 현 범어총림 방장 지유 큰스님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대학 신입생 박문호는 그해 여름 순천 송광사 수련대회에 참가했다. 그때 법정 스님이 수련원 원장으로 계셨다. 중학 때부터 잡지 <샘터>를 읽어서 법정 스님을 알고 있었고 법문도 들을 수 있었다. 울력(노동) 시간에 밀짚모자를 쓴 스님이 앞에 보이는데 외국스님이었다. 궁극의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물리학·천문학·불교의 융합

송광사의 새벽예불은 청년의 감성을 흔들었다. 마루바닥을 울리는 범종소리가 온몸을 타고 울리면서 그를 전율케 했다. 사물이 깨어나는 송광사의 새벽예불은 박문호 인생에 각인된 두 번째 인상적인 장면이었다. 그것도 동해바다처럼 무한에 대한 영감을 주었다.

대학 1학년 겨울부터 그는 방학 때면 2개월씩 절에 머물렀다. 영천 은혜사, 팔공산 묘봉암, 경주 단석산 신선암, 경주남산의 옥룡암 등 5년에 걸쳐 암자에 만 스무 달 정도 살았다. 묘봉암에서 함박눈이 내릴 때 문을 열면 영천 뜰이 하얗게 펼쳐졌다. 심장 뛰는

리더를 위한 건강 이야기 ③

남자로 태어났다면

세상을 한 번

흔들어봐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보다
더 큰 세상을 만들
이 시대의 리더-
당신에겐 이 땅의 기운이
가득 담긴 귀한 홍삼,
천지인의 활력이 필요합니다

계약재배,
100% 자연 재배전조,
120년 홍삼 조화 공법,
3,000 초고압,
30년 홍삼 장인의 노하우

대지에서 온 건강 동원 천지인 홍삼

소리가 들릴 정도로 사방이 조용했다. 그 시기 절간에서 고요에 길들여져 지금도 소음을 못 견딘다. 암자 생활이 기질을 만들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삼성반도체에 들어갔다. 1987년 지금의 전자통신연구원에 들어가서 불교모임을 만들었다. 20여 명이 점심시간에 경전공부를 했는데 서경수 선생에게 인도불교사, 이기영 교수에게 <반야심경>과 <대승기신론>을 배웠다. 원문으로 공부하고 돌아가면서 원효사상을 발표했다. 10년간 이렇게 공부하면서 읽은 불교서적이 1천 권 정도 쌓였다. 당시엔 대전 불교서점에 가서 책을 사는 것이 일이었다. 또 해남 대흥사와 석굴암, 통도사와 범어사 등 수련대회에도 일곱 번이나 갔다.

사춘기에 동해바다를 보면서 자연과 만났다면 대학 1학년부터 유학 가기 전 34세까지 불교적 사고를 했다.

"결과적으로 불교적 사고가 자연과학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불교를 공부하면서 추상적 사고를 훈련시켰어요. 가장 추상적 학문이 입자물리학인데 물리의 세계, 극미의 세계, 양자역학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유식(唯識)사상도 '뇌 공부'를 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1991년부터 97년까지 미국 텍사스 A&M대학에 유학하여 전자공학으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전자공학은 굉장히 실질적인 학문으로 이것을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문명을 이루고 역사를 바꾸는 분야를 몰랐을 것이다. 그는 미국시절부터 천문학을 공부했고 돌아올 땐 뇌에 관한 책을 100권 정도 사왔다. 물리학은 자연 현상을 보는 훈련이고 천문학도 외부자연이 관찰대상이지만 불교를 공부했기에 기질적으로 자연히 인간의 내면세계에 들어왔다.

귀국 길에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 때 일출장면이 펼쳐졌다. 장엄했고 압도적이었다. 그의 인생에서 세 번째로 마주친 무한대에 대한 직감이었다. 자연의 실체를 탐구하는 137억 년 우주 진화에 대해 연구할 엄두를 낼 수 있었다.

죽음이란 물질의 측면에서 보면 분자구조가 바뀌는 것이다.
화장하면 연기가 나는데 이산화탄소다. 남은 뼈는 칼슘이다.
죽으면 천국이 아니라 땅으로 간다.

귀국 후 연구소에 복직하여 연구경력을 쌓고 2002년 고미숙 박사를 만나 연구집단 '수유 너머'에서 천문학과 생물학 강의를 5년간 했다. 10년 전 삼성경제연구원에서 뇌 강의를 시작한 인연으로 뇌에 관한 전문서를 두 권 펴냈다. <뇌, 생각의 출현>은 2008년 7개의 신문에 올해의 책으로 선정될 만큼 반향이 컸다. <그림으로 읽는 뇌과학의 모든 것>은 2012년 미래부장관이 수여하는 저술상을 받았다. 그는 어떻게 시간을 조각 내어 그 많은 공부와 일을 할 수 있는 걸까.

침묵의 능력이 필요하다

공부방법은 간단하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이렇게 한지 10년가량 됐다. 9시에 잠자리에 들어 3시나 4시경 일어난다. 집중적으로 두어 시간 공부하고 아침 먹기 전 운동하러 간다. 하루 3시간 조용한 시간을 확보하여 10년만 지속하면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그는 조언한다. 또 공부와 일상을 바꾸어야 한다. 대부분 일상 속에 공부가 양념처럼 들어 있다. 공부 속에 일상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자면 복잡한 대인관계도 없어야 하고 다른 취미도 없어야 한다.

“공부하는 사람은 한자리에 오래 앉아 있어야 해요. 침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말하는 것은 습관적 반사동작에 가까워요. 뇌에 도움이 안 되는 행위예요. 침묵하는 동안엔 공부하고 있는 것을 마음속에 장악하고 있어요. 기억의 창고를 더듬어 내적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잡담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박자세’의 정식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100여 명이지만 강의를 듣는 사이트 회원 수는 4천 명에 이른다. 자연과학운동이 조금씩 확산되고 후원자도 늘어난다. ‘박자세’는 늘 암기와 반복을 강조하는데, 박문호 박사도 뇌공부를 하면서 도표를 수없이 그렸다. 회원들은 복잡하기 짝이 없는 리스만 도표(뇌의 주요 영역과 연결도)도 외워서 발표하는데 아인슈타인 상대성이론까지 외워서 2시간 동안 칠판에 푸는 회원도 몇 있다. 전문 과학자도 아닌데 상대성이론을 아는 것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물으면 그는 이렇게 답한다.

갑사 대적전
부처님 앞에서의
예불은 언제나
깊은 위안과
성찰의 계기를
준다.



사진: 홍창표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공식을 적어보았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라고, 그것을 10%만 이해하면 어떤가. 일단 시작하면 그 길로 간다. 도달은 못할지라도. 지금 이 생애 다 못한다고 해서 아예 그만두면 영원히 기회를 놓친다. 선방 문고리만 잡아도 깨달음에 다가간다고 한다. 당신은 깨칠 자신이 있다고 좌선을 하나? 초기경전에는 산책하는 붓다에게 아이들이 흙에 물을 부어 떡을 만들어 바치는 이야기가 나온다. 붓다는 기특한 아이에게 언젠가 깨칠 것이라며 수기를 내린다.

자연과학운동을 하는 선구자에게 “왜 당신은 자연과학을 하는가?”라고 기초질문을 하면 그는 시를 펼친다. 지구라는 행성에 인간이라는 존재로 태어나서 삶을 마무리할 때가 되면 나는 어디로 가며 생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자연과학에 물겠다고. 물질은 중력장에, 동물은 감각장에, 인간은 의미장에 구속되어 있다. 삶이 무의미해도 우리가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은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자연의 암석은 그런 세계가 아니다. 언어가 없는 세계로 간다. 무생물, 무화된 세계로 가는 것이다. 그 무의미를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

두 달 전 그는 부친상을 당했다. 자연과학자도 죽음에 대한 생각을 했다. 가까운 이가 죽었을 때 괴로운 것은 기억의 단절 때문이다. 물리적 실체는 사라져도 기억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 어떤 죽음은 슬퍼하고 어떤 죽음은 슬퍼하지 않는 이유도 기억의 강약에 있다. 죽음이란 물질의 측면에서 보면 분자 구조가 바뀌는 것이다. 화장하면 연기가 나는데 이산화탄소다. 남은 뼈는 칼슘이다. 죽으면 천국이 아니라 땅으로 간다.

“의미가 없으면 어떤가. 문화적으로 허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본연의 자리예요.”

그는 문태준 시인과 황동규 시인을 좋아한다. 황동규 시인은 “초월은 초월하지 않은 곳에 있다”고 했다. ‘풍장’ 연작시도 살아서 무생물이 되는 과정을 그렸다.

‘바람을 이불처럼 덮고/ 화장化粧도 해탈도 없이/ 이불 여미듯 바람을 여미고/ 마지막으로 몸의 피가 다 마를 때까지/ 바람과 놀게 해다오.’

가장 최근에 펴낸 시집 《사는 기쁨》은 노시인의 달관인 듯 한결 여유로운데 ‘무중력을 향하여’라는 시는 자연과학자의 무릎을 치게 한다. 사람은 흔히



사진: 중앙포토

갑사의 고목이 가을 휴식에 들어갔다. 무생물적 자연은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고향이다. 이 고목도 언젠가 그곳으로 갈 것이다.

죽음 너머의 세계를 상상하지만 그런 세계가 있을까. 내가 죽고 없는 세계를 시인은 이렇게 그렸다.

‘이제 나는 내가 아니야!’ 병원 침대에 누웠다가 세상 뒤로 아주 몸을 감추기 전 친구의 말. 가면처럼 뜯겨진 얼굴. 더 이상 말을 아꼈다. 창틀에 놓인 화병의 빨간 가을 열매들이 눈 반짝이며 ‘그럼 누구시죠?’ 입원실을 나와 마른 분수대를 돌며 생각에 잠긴다. 조만간 나도 내가 아닌 그 무엇이 되겠지. 그 순간, 내가 뭐지? 묻는 조바심 같은 것 홀연 사라지고 막혔던 속 뿔린 바보처럼 마냥 싱긋대지 않을까. 뇌 속에 번뜩이는 저 빛.

생각의 접점마다 전광 허로 침질하던 빛
문득 사라지고
생각들이 놓여나 무중력으로 둥둥 떠다니지 않을까
내가 그만 내가 아닌 자리.
매에 가로채인 토끼가 소리 없이 세상과
결별하는 풀밭처럼
아니면 모르는 새 말라버린 춘란 비워낸 화분처럼
마냥 허허로울까?
아니면 한동안 같이 살던 짐승 막 뜯 자리처럼
얼마 동안 가까운 이들의 마음에
무중력 냄새로 떠돌게 될까?

그는 12년째 뇌 공부를 지속하고 있다. 그는 진화적 관점에서 뇌과학을 공부하면서 인간의 감정과 본능의 기원을 추적하여 드러내길 좋아한다. 자연은 생물과 무생물 모두를 포함한다. 생명은 무생물에서 출발하였기에 우리는 무생물적 자연이 우리가 돌아갈 본연의 곳이라는 사실에 익숙해져야 한다.

뇌를 공부하는 것은 내 안의 물고기를 발견하기 위해서다. 5억 년 전 물고기가 인간까지 오는 과정을 추적하면 동물적 본능의 본질을 지시할 수 있다. 그 점이 중요하다. 인간사회를 이루면서 조야하고 거친 면은 걸러졌지만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것을 알기에 자연과학자인 그는 유교학자들처럼 윤리도덕을 강조하지 않는다. 자연과학 운동이란 어찌 보면 완전한 인격체에 반하는 운동이다. 반유교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 본성을 들여다보자는 것이다.

청년기 15년간 불교의 진리를 추구하고 지금도 철마다 마곡사며 법주사를 '저 절로' 찾아가지만 이 자연과학자는 구도자라거나 종교적인 수식으로 불리면 정색을 한다. '박자세'의 한 진지한 회원은 "광대한

우주 속 지구라는 행성의 인간 현상을 탐구하는 구도자를 몰라보았고, '박자세'를 통한 그의 공부는 수행의 여정이라는 것 또한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글을 올렸지만 정작 박사는 아니라는 표정을 짓는다. 나는 다시 생각하고 싶다. 물고기의 후예가 구도하고 수행하면 동물답지 못한 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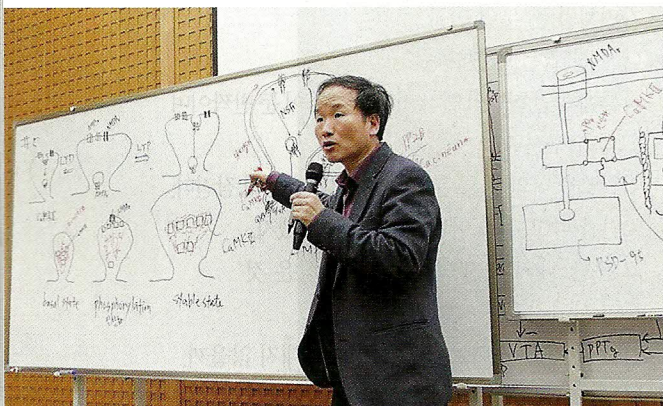
불교는 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라는 궁극을 추구하는 종교다. 그 강한 의지력을 긍정한다. 선불교가 지향하는 것은 언어가 끊어진 자리 즉 의미장—인과로써 밀폐된 공간—을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의식 너머를 지향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의식이 가진 가장 놀라운 능력이다. 청년기에 〈화엄경〉 〈대승기신론〉 같은 대경전을 만난 것도 뿌듯하다. 그가 가장 영향을 받은 경전은 〈반야심경〉과 남방불교의 〈사념처경〉이다. 몸(身), 느낌(受), 마음(心), 현상(法) 네 가지를 관찰하여 번뇌를 없애고 바른 도를 얻게 하는 것인데, 내면의 심리적 관찰이다.

“너무 불교적이지 말라, 과학에서 답을 얻으라”

붓다는 생물학적 관찰자다. 몸의 관찰자로서 깨친 방법이 '요가'다. 어떤 세계의 철학자도 안의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 등 몸의 감각기관을 말한 사람이 없다. 그것이 중생이라는 것을 정확히 정의했고, 물질(色)과 정신(受·想·行·識)의 다섯 기관인 오온이 모두 비어 공(空)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불교의 위대한 점은 생리학에서 출발하여 진여문(眞如門: 의미가 없는 곳, 무의미의 장)까지 넘어간 점이다.

사회문화적 형태로서의 불교를 너무나 좋아하지만 그는 종교와 객관적 거리를 유지한다. 종교현상은 언어가 출현하고 4만 년 전 동굴벽화를 시작으로 나타난 구석기시대 문화의 대폭발이었다. 죽음이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출현한 종교의 본질은 구원이지만 고통을 느끼는 것도 문화적 현상이다. 종교가 지향하는 상당부분은 과학에서도 충족할 수 있다. 달라이라마가 외국서 연설하는 것을 TV로 보니 너무 불교적이지 말라, 과학에서 답을 얻으라고 했다.

박사의 열강은 유명하다. 6년에 걸친 350여 시간에 한 번도 결강한 적이 없다. 열강을 하는 만큼 청중에게도 '열청'을 원한다. 회원 중 누가 즐기라도 하면 이런 걸 들으면서 어떻게 잠이 오나, 편잔을 주면서 "졸리면 서서 들으세요!"라고 한다. 진리를 흘려버리는 부주의에 대한 안타까움일까. 실크로드 답사



박문호 박사의 열강(熱講)은 유명하다. 6년에 걸친 350여 시간 강의에 한 번도 결강한 적이 없다. 열강하는 만큼 청중에게도 '열청'을 원한다.



때에도 버스에서 법성계를 강연하며 “우보의생만허공, 중생수기득이익(雨寶益生滿虛空衆生隨器得利益)”을 강조했다. “진리가 비처럼 쏟아지는데 중생은 자기 그릇만큼만 가져갑니다. 제발 그릇 좀 넓히세요”라고.

몽골 초원에서 새벽 5시 ‘별 강의’를 하면 대원들은 시리우스가 보인다고 탄성을 지른다. 어느 새벽에 꿈결인 듯 들려오는 양자-중성자 단어들과 강의 풍경은 누구에게는 영원히 각인된다. 한 회원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바로 지금, 우리 존재의 비밀에 간단없이 들어가는 것만이 최선이다. 수백 번 미루어 녹슬었던 공부의 문이 이날 새벽 뼈저덕 소리를 내며 열리는 것이었다.” 실크로드 답사 때에는 새벽의 쿠무타크 사막에서 모래에 도표를 그리며 힉스 입자 강의를 했다. 한 회원은 이것을 산상강의라 했는데, 모래 둔덕에 서서 아침 해를 맞이하며 열강하는 모습은 명장면이었다.

역시 실크로드 답사 때다. 도로에 사고가 났는지 버스가 한없이 정체되자 순발력으로 시작한 강의도 잇을 수 없다. 박사는 늘 하듯이 통로에 서서 <대승기신론> 강의를 시작했고 나는 요의(尿意)를 느꼈으나 통로에서 강의가 진행되니 꼼짝없이 간혀서 들어야 했다. 진리가 비처럼 쏟아져도 생리현상을 해결하지 못한 중생의 귀에 강의가 들어올 리 없다. 심진여문(心眞如門)과 심생멸문(心生滅門)이 간간히 들려왔을 뿐이다. 버스가 몇 대나 밀린 채 계속 정지해 있었지만 우리는 정확한 이유도 몰랐다. 낭비되는 시간을 잡았지만 이 와중에 공부라니.

지친 얼굴로 박사를 바라보다 나도 모르게 강의하는 모습에 빨려들었다. 밖은 완전히 어두웠고 버스가

2011년 ‘박자세’ 회원들과 함께 떠난 몽골 답사 때 보았던 쌍무지개. 사진에 보이는 석조 구조물은 1천여 년 전 거란족의 옛성이다.

다시 떠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다. 타이타닉호가 뜬금없이 떠올랐다. 우리가 잠겨가는 타이타닉호에 승선해 있더라도 그는 집중을 요구하며 열강을 할 것 같았다. 통 속의 디오게네스처럼 버스 속에서 불경을 풀이하는 자연과학자의 모습에 나는 머리를 내저었다.

“배고픔은 참아도 아름답지 못한 건 참을 수 없다”

그의 집에는 그림 대신 뇌 지도와 천문학 액자들이 걸려 있다. 7천여 권의 책은 온 벽면을 채우고 주방과 통로, 아이들 방까지 진출해 있다. 공부밖에 모르는 ‘머리 지식인’인 줄 알기 쉽지만 그는 누구보다 감성적인 자연과학자다. 수없이 뇌를 그려도 그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진다고 한다. 야생화가 흐드러진 몽골 초원에서 야영할 장소를 찾다가는 ‘꽃 위에 텐트를 칠 수는 없다’고 했다. 서호주 책을 만들 땐 책 디자인에 몰입하라고 주문했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아름답지 못한 것은 참을 수 없다.”

11박의 실크로드 답사를 끝내고 대원들은 저녁식사 후 한자리에 모였다. 박사는 그동안 갔던 장소 중 가장 인상 깊었던 3곳을 각자 말하자고 했다. 더없이 적절한 답사여행 마감이었다. 23명이 돌아가면서 말하는데 박사는 월내천과 고창국, 수바시 고성을 꼽았다.

나는 먼저 간 순서대로 말하다가 수바시 고성을 빠뜨릴 수밖에 없었다. 옛 쿠처 왕국의 수도에 남은 폐사지. 3세기에 창건된 절에 당의 현장법사가 인도로 가던 중 2달가량 머물렀고, 727년엔 한반도에서 최초로 신라인 혜초가 들렀다. 동서 가람에 일부 흠벽이 남아 규모를 알 수 있었지만 무너져 겨우 잔해만 남은 터엔 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있었다. 박사는 압축된 한마디로 시인의 감동을 말했다.

“다 보내고 혼자 남고 싶었다”고.

우주의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시인일 수밖에 없다.①



강석경 1974년 이화여대 미대 조소과를 졸업하고 월간 <문학사상> 제 1회 신인상으로 문단에 데뷔했다. 소설집 <밤과 요람> <숲속의 방> 장편 <가까운 골짜기> <세상의 별은 다 라사에 뜬다> <내 안의 깊은 계단> <미물> <신성한 불이 있다> 그 밖에 <능으로 가는 길> <경주산책> 등의 산문집을 썼다. ‘오늘의 작가상’, ‘21세기 문학상’을 수상했다.